

1983년도 미국의 농업생산과 사료곡물 전망



이 유 방
(미국 캘리포니아대학 교수)

본 원고는 전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축산가공연구실장을 지낸 바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대학의 이유방 박사가 본지 독자와 국내 양계인들을 위해 특별히 기고한 원고로 우리나라 축산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료곡물현황과 미국의 농업생산에 대해 언급한 것으로 83/84 회기년도 사료곡물가격과 국내 사료가격 전망에 대해 논하고 있다.

1980년 이후의 세계적인 곡물생산의 증대, 재고량 증가, 국제적 불경기로 인하여 하락하는 사료곡물가격은 우리나라 양축가에게는 무엇보다도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세계의 다른 지역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의 사료곡물도입은 지난 3년간 年 5%의 지속적인 증가를 보이고 있고 1982/83년도에는 280만톤을 상회할 것으로 추계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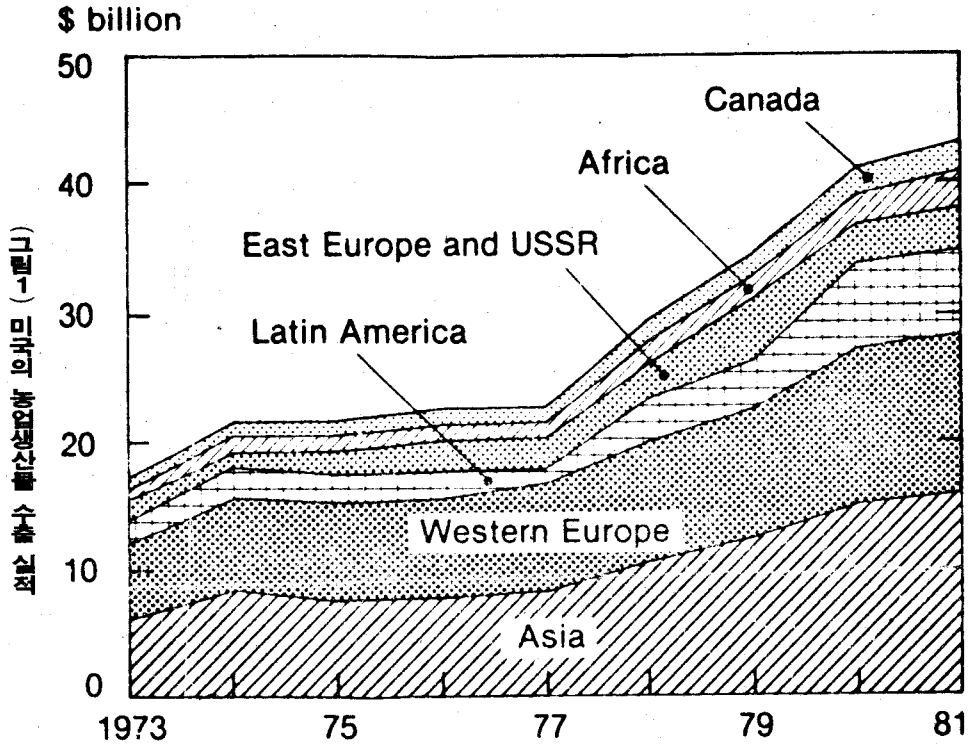
한편 곡물재고량의 증가와 가격하락은 미국 농민에게 커다란 경제적 압박을 가져오고 있으며 이의 타개를 위해 미 농무성은 작부면적의 축소 및 해외시장의 확대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미국 농무성이 발표한 1983년도 미국의 농업생산과 곡물무역전망 및 12월 10일자 Time 지에 게재된 기사를 토대로 하여 1970년대의미

국 농업생산의 팽창과 80년대의 상황 및 1983년도의 곡물생산 전망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보고자 한다.

1. 1970년대의 농업생산 팽창

1970년대의 미국 농업생산의 급격한 팽창은 여러가지 내적 및 외적요인에 기인하였다. 첫째, 1970년대 초기의 세계적인 식량공급의 어려움과 수요의 증대는 미국농업의 팽창을 촉진하였고, 아울러 국외 시장에서의 의존도를 증가하여 오늘날 작부면적의 1/3은 이러한 외국시장에서의 수출을 위한 셈이 되었다. 더욱이 1970년대에는 세계 경기가 호황이었고 달러(\$)의 약세로 더욱 수출이 촉진되어 1971~1981년의 10년 사이에 농산물 수출액이 무려 3배로 증가하였



고 특히 1977~1980년의 4년 사이에는 역사상 볼 수 없었던 급격한 수출 성장을 기록하였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1년도 농업수출액은 433억불이었고 이중 곡물이 194억불, 採油種子(oilseed)가 93억불, 나머지가 축산물, 과일채소, 면화로 되어 있다.

둘째로 1970년대에는 미국 국내 경기역시 대체적으로 호황으로써 국내 수요가 증가하였으며 특히 축산물의 수요증대로 사료곡물의 수요가 증가하였다. 예를 들면 쇠고기의 경우 1960년대 부터 계속 증가하여 1976년에 사상 최고의 생산량을 기록하였다.

셋째로, 70년대에는 자금의 용자가 용이하고 풍부하였으며, 땅값이 계속 상승하였고 또한 곡물가격이 상승하는 등, 매우 좋은 조건들은 농가로 하여금 돈을 빌려서 농업생산에의 투자를 촉진하게 하였다. 그 결과로 1971년 이후 10년 사이에 작부면적의 증가가 2,400만 ha이나 되었고 이와 아울러 생산기술의 발달과 좋은 기후는 단위 면적당 생산량을 17% 증가시켜, 결과적으로 10년 전에 비해 작물생산량이 20% 이상 증가하였고 축산업 역시 7% 증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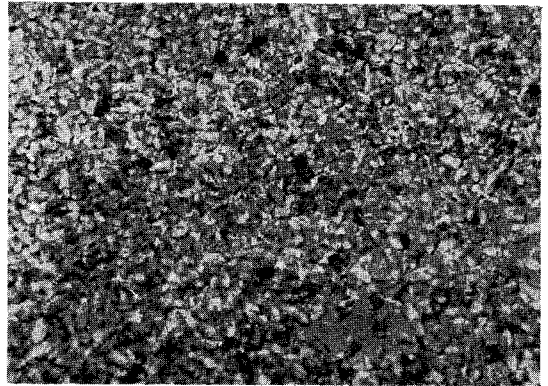
2. 80년대의 어려움

전술한 70년대의 호경기와 팽창과는 달리 80년대에 들어와서 세계적인 그리고 미국 국내 경기의 급전적인 변화는 미국 농업생산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으며 1983년 역시 많은 농가에게는 소득부진의 해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같은 1980년대의 미국 농가경제의 어려움을 초래한 첫째 요인으로서 세계 곡류생산이 지난 2년간 최고의 생산을 기록한 반면 그 수요가 크게 위축하므로써 수출이 부진하게 되었음을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곡물수출 부진은 세계 경기의 위축 외에도 많은 곡물도입국들의 국가경제의 불안정, 달러(\$)의 강세, 1980년도에 단행된 소련의 곡물수출금지정책에 의한 손실, 동서간의 계속적인 정치적 알력 및 곡물수출 경쟁국간의 불공정한 무역거래행위등에 기인하고 있으며 1981/82회계년도에 있어 13년 만에 처음으로 곡물수출에 있어 마이너스 성장을 가져오게 되었다. 총물량에 있어서는 전년도 보다 2%의 감소에 불과하였으나 가격 하락으로 수출액은 11%나 감소하였다. 특히 옥

수수의 수출이 타격을 받아 물량으로 1천万吨, 액수로는 30억불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둘째 요인으로는 미국 국내 경기의 침체로 인한 내수의 감소, 특히 축산물의 수요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으므로 인하여 사료곡물의 수요가 크게 둔화되었음을 들 수 있다. 현재 우유는 과잉생산으로 인하여 생산을 크게 축소해야 할 단계에 있으며 가격지지 정책에 의해 사들인 치즈는 저장할 곳이 없어 저소득자에게 무상분배하였다. 다른 축산 부문에 있어서도 현 사료곡물 가격이 크게 낮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위축으로 수익전망이 밝지 않아 증축(增畜)을 크게 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셋째 요인으로는 상기한 국내의 수요의 감소로 이미 곡물의 재고량이 많아져 작년도에 정



부에서는 경작면적의 축소를 권장하였으나, 70년대에 농업생산의 확장을 위해 농가가 많은 부채를 안게되어 이 부채의 지불을 위해, 또 많은 투자를 하였기 때문에 당장 생산을 줄일 수 없

표 1. 세계의 사료곡물의 생산, 수요, 재고량 현황(백만톤)

		1978/79	1979/80	1980/81	1981/82	1982/83 (예상)
세계 전체	생산량	753.6	741.3	730.0	765.4	780.0
	이용량	748.2	740.8	741.4	731.2	751.2
	재고량	91.0	91.5	80.1	114.3	143.1
	재고/이용량비율, %	12.2	12.4	10.8	15.6	19.0
	무역량	90.2	100.9	105.5	103.7	98.8
미 국	생산량	222.1	238.7	198.4	248.9	253.0
	이용량	157.2	161.4	147.3	152.2	157.8
	수출량(7월/6월)	56.9	71.6	72.4	61.4	61.5
	재고량	46.4	52.7	34.7	73.1	105.1
	미국재고/세계재고, %	51.0	57.6	43.3	64.0	73.4
소 련	생산량	105.3	81.1	80.5	72.0	85.0
	이용량	113.2	99.5	100.5	97.6	104.0
	수입량	9.9	18.4	18.0	25.6	19.0
	재고량	1.0	-	-2.0	-	-
기타곡류수출 국(캐나다, 호주, 알제틴, 남아프 리카, 태국)	생산량	56.5	50.7	67.2	64.9	63.0
	이용량	36.0	35.6	36.6	37.7	37.5
	수출량	23.1	20.8	22.7	32.5	27.7
	재고량	10.6	7.0	10.3	8.2	9.0
기타나라들	생산량	369.7	370.8	383.9	379.6	379.0
	이용량	441.8	444.3	457.0	443.7	451.9
	수입량	80.3	82.5	87.5	78.1	79.8
	수출량	5.9	8.7	13.3	12.6	7.7
	순수입량	74.4	73.8	74.2	65.5	7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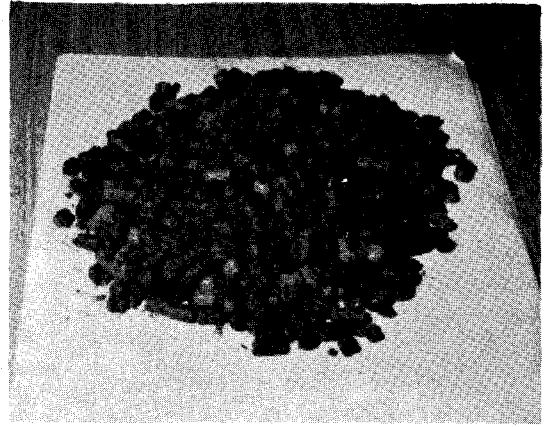
어 계속 생산을 한 결과로 재고량이 더욱 많아져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농가수입이 감소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이다.

3. 사료곡물 재고현황과 가격추세

지난 2년간 계속해서 사료곡물의 생산은 수요를 상회하여 1982/83년도의 세계 재고량은 81/82년도에 비해 26%, 그리고 80/81년도에 비해 75%가 증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특히 미국에 있어서의 재고량 증가는 심각하여서 80/81년도에 비해 재고량이 약 3배로 증가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 즉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82/83년도의 세계 사료곡물 생산은 7억 8천만톤, 소비가 7억 5천만톤, 총 무역량 약 1억톤, 그리고 재고량은 사상 가장 높은 1억 4천 3백만톤이 될 것이며 이 세계 재고량의 73%인 약 1억톤이 미국내의 보유량으로 추산되고 있다. 특히 옥수수의 경우 세계 총재고량 1억톤, 미국내 재고량은 약 8천 7백만톤이나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1982/83년도의 사료곡물 무역량은 기록을 세웠던 81/82년에 비해 약 5백만톤이 적을 것으로 보이나, 미국의 수출량은 작년도 보다 약간 증가한 6천 2백만톤이 될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옥수수의 경우 미국내 수요가 어느 정도 증가하고 수출 역시 약간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 재고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1982년도에 생산된 옥수수 가격은 작년도가격인 푼셀당 \$2.45(톤당 96불), 또 1982년도의 loan rate인 \$2.55(톤당 100불)보다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이며 상대적으로 다른 사료곡물가격 역시 낮은 수준에서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대두의 경우에 있어서도 미국내 생산이 15% 증산되었고, 1982/83년도의 미국내 총 공급량은 11% 증가되었다. 저렴한 가격에 힘입어 미국내 및 세계적인 대두 수요는 증가하고 있기는 하나, 미국내 肉豚수의 감소, 세계적인 경기침체 및 다른 대체작물의 공급증가로 미국산 대두의 국내수요 및 수출량은 제한된 증가만을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격역시 지난해의 푼셀당 \$6에 비해 1982년산 대두의 가격이 \$5.25~\$5.75사이로 전망되고 있다.



4. 1983년도의 미국 농업생산과 정책

전술한 바와 같이 1970년대의 확장과 1980년대 초기의 세계적인 곡류 증산에 반하여 수요의 둔화로 주요 곡물의 가격은 1978년 이후 가장 낮고 이에 따라 농가 수익이 떨어져 많은 미국 농가들이 경제적 압박을 받고 있다. 1983년 역시 매우 어려운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이며 농가 수입 역시 크게 호전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물론 밝은 면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어서 생축의 가격이 오르고 있고 돼지 두수가 얼마간 증가할 것이며 비육우 및 브로일러생산도 약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또한 미국내의 인플레이션이 크게 둔화되고 이자율 역시 떨어져 수요를 촉진하고, 농가의 생산비와 이자비용을 크게 경감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83년도에는 세계 경기 및 미국내 경기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인플레이션율은 크게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와 아울러 미국 농무성은 곡류 공급량의 조정에 안간힘을 쓰고 있으며 1983년도에는 주요 작물의 경작지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즉 정부는 농산물가격지지 프로그램(price support farm program)의 혜택을 받고자 하는 농가는 작부면적을 15~20%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payment-in-kind plan (PIK)이라 하여 농가들이 경작면적을 10~30% 줄이는 경우 그 경작지에서 생산되어 온 동일한 종류의 곡물을 정부 보유량에서 농가에게 공급해 주므로써 농가는 받은 곡물을 시장에 팔아 농가수입을 얻게 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밀농사를 하는 어느 농



△ 어분생산을 위한 잡어들

가가 밀 100 bushel을 생산할 수 있는 경작면적을 유희시켰을 때 정부는 약 80 bushel을 농가에게 공급하고 농가는 이 80 bushel을 시장에 팔게 된다. 결과적으로 시장에게 매매되는 곡물 공급량이 20% 감소되고, 농가는 생산비를 전혀 들이지 않고 80 bushel을 받아 팔게 되므로써 농가 수입을 크게 향상시키게 된다. 이러한 가격지지 정책 및 PIK plan을 통하여 작부면적의 감소로 재고량을 줄이고 아울러 저장비용과 가격지지에 소요되는 비용도 줄이므로써 농가뿐 아니라 정부비용도 줄인다는 것이 미 농무성의 발표이다. 농가를 대표하는 많은 농업단체들이 재고량 축소를 위해 미 농무장관이 제시한 여러가지안 중에서 PIK plan을 가장 유망한 것으로 지지하고 있다. 따라서 1983년도에 있어 곡물생산을 위한 작부면적은 농가의 호응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약 15~25% 정도 축소되지 않을까 생각된다. 또한 미정부는 해외시장의 확장을 위해 새로운 수출신용(export credit)인 "blended credit"을 3년간 발전개도국에 공여할 것으로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특별한 이상기후나 세계정세의 큰 변화가 없는 한, 1983년도에는 세계 경기의 회복이 느리고 이미 곡물 재

고량이 높아져 83/84년도 회기년도까지는 곡물의 가격이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984/85 회기년도에는 1983년도의 작부면적의 축소 정도와 그때의 재고량에 따라 가격결정이 되겠으나 작부면적 축소를 위한 정부의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되는 경우 재고량의 감소와 함께 곡물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미국내 돼지두수가 현재 5천 2백만두로서 작년도에 비해 10% 이상의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1984년도에는 회복될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사료곡물의 국내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 1984/85년의 곡물가격에 하나의 상승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5. 결 어

이상으로 미국의 70년대 및 80년대 초기의 농업생산에 대해 개괄해 보고 1983년도의 농업정책의 일면만을 간단히 다루어 보았다. 결론적으로 83/84년 회기년도까지는 사료곡물이 풍부하고 낮은 가격에서 거래될 것이나 84/85년 회기년도에는 재고량이 어느 정도 감소하고 83/84년 회기년도보다는 가격이 상승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축산업계를 위해서는 낮은 국제곡물가격은 분명 기쁜소식이 되겠으나 이 가격의 저하가 양축가 및 소비자에게까지 전가되어 보다 소비를 촉진하고 양축가의 수익을 향상시키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는다면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정부나 축협에서는 도입되는 사료곡물 가격이 낮아 상당액의 사료안정기금을 부과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안정기금이 양축가를 위해서 사료가격 안정은 물론 유통구조의 개선을 위해 가장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고 양축가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것이다. 한편 축산업계는 사료가격이 낮다고 해서 수요이상의 증산을 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협력하므로써 축산물 가격의 지나친 폭락이 오지 않도록 생산조정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